

노년기 죽음준비에 대한 개념도 연구*

Received: July 21, 2022
Revised: January 13, 2023
Accepted: February 21, 2023

최인자¹, 김민희²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졸업생¹,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교수²

교신저자: 김민희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366

Study on Concept Mapping of Death Preparation in Old Age

E-MAIL:
pseudo@kcgu.ac.kr

InJa Choi¹, Min-Hee Kim²
Department of Counseling Psychology, Korea Counseling Graduate University/
A Graduate Student¹
Department of Counseling Psychology, Korea Counseling Graduate University/
Professor²

* 본 연구는 제 1저자의
석사학위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개념도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노인들이 인식하는 죽음준비의 개념적 구조와 차원을 시각화하고, 그 중요도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죽음준비에 관심이 있는 노인 12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여 면담을 실시하여, 최종진술문 52개를 도출하였다. 도출된 진술문에 대해 다차원척도분석, 위계적 군집분석, K-평균법을 실시한 결과, 죽음준비 개념이 2개의 차원과 4개의 군집으로 구성됨을 확인하였다. 2개의 차원은 '현실적-실존적' 차원과 '미래지향적-현재지향적' 차원으로 명명하였다. 또한 4개의 군집은 '여생에 대한 집중', '일상의 정리', '마지막 과정에 대한 바람', '의미와 생성감 추구'로 명명하였다. 참여자들은 4개의 군집 모두가 죽음준비로 중요하다고 평정하였으나 상대적으로 '일상의 정리'의 중요도를 가장 높게 평정하였고, '마지막 과정에 대한 바람'을 가장 낮게 평정하였다. 본 연구는 노인들이 인식하는 죽음준비의 개념을 노인의 관점에서 확인한 첫 번째 연구로, 향후 노년기 죽음준비와 관련된 연구를 촉진시키는데 기여하였다.

주요어 : 노인, 노년기, 죽음, 죽음준비, 개념도



© Copyright 2023.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죽음이 가진 특징 중 하나는 그것의 불가피성으로, 죽음은 예외 없이 모두에게 일어나는 최대의 사건이다(김현아, 2021). 과거 전통사회에서 죽음은 우리의 삶 주변에 늘 존재했기에,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이범수, 2016). 하지만 전통사회에서 현대사회로 이행하면서 죽음에 대한 논의가 사라지고(송현동 외, 2022), 죽음을 대하는 방식에 두드러진 변화가 나타나면서 점점 죽음을 터부시하게 되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인간의 평균 수명이 길어져 많은 사람들이 긴 노년기를 보내게 되면서 잘 사는 것 못지않게 잘 죽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의 전환이 일어났다(이명숙, 김윤정, 2013). 이러한 인식의 변화로 인해 여러 나라에서 좋은 죽음에 대한 관심이 커지게 되었고, 죽음에 대한 생각을 환기하고 활발하게 토론하려는 사회적 노력이 생겨났다. 예를 들어, 영국 전역에서 실시된 ‘죽음 알림 주간’ 등이 대표적이다(정현채, 2021). 이 주간 동안 다양한 죽음 관련 행사가 개최되고, 사람들은 ‘데스 카페’에서 자연스럽게 죽음에 관해 이야기를 나눈다(황설중, 2021). 이러한 흐름과 일관되게 국내에서도 죽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논의하려는 시도들이 생겨나고 있으나 여전히 죽음에 대한 공개적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죽음은 모든 연령에서 발생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노년기에 일어나는 현상으로, 전체 사망자 중 노인 사망자의 비율이 84.1%에 달한다(통계청, 2020). 따라서 노년기와 죽음은 서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정순돌 외, 2014; Fortner & Neimeyer, 1999). 그러나 죽음에 대해 회피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죽음에 가장 근접한 노인들도 예외는 아니다.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노인들 스스로도 죽음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힘들어하고 부정적으로 여긴다(조명옥, 1996). 하지만 좋은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죽음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다(김태현, 전길양, 1997; 조명옥, 1996).

좋은 죽음은 문화에 따라 혹은 죽어가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다르게 인식되지만, 일반적으로 존엄하게 두려움 없이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의미한다(Howarth & Leaman, 2003; Yalom, 2008). 다시 말하면 좋은 죽음이란 유한한 삶과 자신의 한계를 수용하고 현재의 순간에서 소중한 것을 행하며 인간으로서 소중한 가치를 찾는 준비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김명숙, 2014), 죽음준비를 한다는 것에는 좋은 죽음을 맞이하겠다는 의지가 포함되어 있다.

공포관리이론(TMT, terror management theory)은 죽음에 대한 공포와 불안을 관리하는 심리적 기제에 대한 이론이다(Greenberg et al., 1986). TMT에 따르면 우리의 일상 행동의 대부분은 죽음에 대한 지속적이고 무의식적 걱정과 불안에 의해 동기 부여되는데, 죽음현저성이 높아지면 죽음 불안이 커지게 되고 이러한 불안에 대처하기 위한 기제를 작동하게 된다. 즉 TMT에서는 죽음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관리하고 그렇지 않으면 발생할 수 있는 불안을 통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심리적 시스템이 형성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현저성이 높아질수록 문화적 세계관에 대한 믿음을 유지하고, 그러한 세계관이 제공하는 가치 기준에 부응함으로써 자부심을 얻는 이중 복합 완충 시스템을 통해 죽음 인식을 관리한다. TMT에 근거하여 볼 때, 죽음의 현저성이 높아지는 노년기에는 죽음을 상기함으로써 생겨나는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해 삶의 의미를 찾고, 후속 세대를 배려하고, 이들을 성장 발전시킴으로

써 상징적 불멸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죽음을 준비한다(Juhl, 2019). 결국 죽음 준비는 죽음을 상기함으로써 생겨나는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선행 연구자들에 의하면 죽음준비의 목표는 삶의 연속성과 의미를 도출하는 것이며(Haj & Antoine, 2016),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죽어가는 사람이 죽음과 내세의 불확실성에 대한 통합감과 확신을 얻는 데 도움이 된다(Firestone & Catlett, 2009). 또한 죽음 준비는 죽음과 관련된 불안과 스트레스를 줄이고, 죽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높이며, 사람들이 삶을 감사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등 다양한 이점을 제공한다(Liu & van Schalkwyk, 2019; Nan et al., 2020).

물론 죽음 준비는 인생의 어떤 시기에서도 가능하지만(Chan & Yau, 2010), 생애 발달의 마지막 과정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노년기의 마지막 중요한 발달과업이다(Liu & van Schalkwyk, 2019). 특히 노년기 죽음준비는 노인들이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고 평온함을 느끼도록 돕는다(Liu & van Schalkwyk, 2019). 노년기에는 죽음 수용 과정을 통해 미해결된 관계 갈등을 해소하거나 자신과의 화해를 통해 죄책감을 해결하며 죽음을 준비한다(이동옥, 2007).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신이 미처 이루지 못한 과업을 완수하기도 하고, 새로운 삶의 가치를 탐색할 기회를 갖기도 한다(김미순 외, 2011). 또한 죽음준비는 삶에 대한 의미 있는 재구성으로 이어져(Erikson, 1963), 남은 삶을 긍정적이고 의미 있게 살고자 노력하도록 만든다(공명옥, 2018; Becker, 1994). 실제로 죽음준비를 하는 노인일수록 더 의미 있는 삶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그 결과 정신적으로 더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된다(유희옥, 2004). 이처럼 노년기 삶의 질이나 방식은

죽음을 준비하는 것에 따라 달라진다(이예종, 2005; 정순돌 외, 2014; Yalom, 2008).

전술한 바와 같이 노년기의 죽음준비가 남은 삶을 행복하고 가치 있게 보내는데 필요한 과정임에도(Liu & van Schalkwyk, 2019) 불구하고, 현재까지 죽음준비에 대한 연구 성과는 미흡하다(김미순 외, 2011). 무엇보다 아직까지 죽음준비가 무엇인지, 죽음준비가 어떤 것을 포함하는지에 대한 합의가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김숙, 한정란, 2012) 죽음준비 연구들은 죽음준비 개념을 조사하기보다는 각각의 연구자들이 정의하는 죽음준비와 변인들의 관계를 밝히는 것에 집중하였다(최준식, 2010; Pinguart & Sörensen, 2002). 선행 연구들은 성별(김숙, 한정란, 2012; Pinguart & Sörensen, 2002), 연령(최외선, 박인전, 2007; Pinguart & Sörensen, 2002), 종교(김정희, 한종숙, 2002; Pinguart & Sörensen, 2002), 교육수준(Pinguart & Sörensen, 2002), 건강상태(김숙, 한정란, 2012; Fortner & Neimeyer, 1999), 배우자 유무(최외선, 박인전, 2007) 등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죽음준비의 차이를 조사하였는데, 이들 연구의 결과는 일관적이지 않고 때로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었는데 이는 각 연구에서 죽음준비에 대한 정의와 측정이 달랐기 때문이다. 이처럼 죽음준비에 대한 다양한 정의들이 존재하고, 죽음준비가 무엇인지 완벽하게 통일된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혹은 죽음준비의 대략적 정의에는 동의하지만, 죽음준비의 구체적 행동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죽음준비를 포함하여 죽음은 개인 관계적, 사회-물리적, 상징적 네트워크를 통합하는 복잡한 다차원적 체계로, 죽음과 개인의 관계는 사회에 의해 매개되기 때문이다(Kastenbaum, Moreman, 2012). 예를 들어, 서구 문화와 동양

문화, 과거와 현재의 죽음준비에 대한 개념은 차이가 있다. 이것은 문화적 인식이 죽음에 대한 공동체적 관점과 죽음준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Chan & Yau, 2010; Liu & van Schalkwyk, 2019; Mak et al., 2013; Oh et al., 2020).

죽음준비모델(Liu & van Schalkwyk, 2019)에 따르면 죽음준비는 죽음에 대한 대화로부터 시작된다. 즉 죽음준비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죽음준비의 첫 단계가 된다(Liu & van Schalkwyk, 201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죽음을 가까이 인식하고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죽음준비를 어떻게 개념 정의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죽음은 노년과 밀접하게 관련된 개념이지만 지금까지 죽음준비 연구들은 주로 병원이나 호스피스 병동의 환자 등 임종을 앞둔 사람들이나 말기암과 같은 심각한 질병을 진단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였고(Lloyd-Williams et al., 2007), 심각한 질병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노인들의 죽음준비는 연구자들의 관심 대상이 아니었다(Park et al., 2023). 예를 들어 한국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Park & Hwang, 2017)에서도 장기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죽음자각과 죽음준비를 조사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볼 때, 현재 대한민국의 지역사회 노인들이 죽음준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연구의 관심을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죽음준비 연구들은 실제로 죽음준비에 대한 인식과 생각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외부자들 즉 연구자들이 생각하는 죽음준비를 다루고 있어, 죽음준비의 현실을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개념도 연구 방법은 연구자의 입장이

아닌 현상을 경험하는 참여자의 입장에서 질적인 접근을 함으로써 새로운 개념에 대해서 탐색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또한 개념도 연구 방법은 연구자의 통찰에 의존한다는 질적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양적인 자료를 근거로 통찰을 제공한다(장연진, 하은솔, 2018).

이에 본 연구는 개념도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노인들의 언어로 구체적으로 진술된 노년기 죽음준비 개념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자의 관점이 아닌 현상을 직접 경험하는 노인의 관점에서 죽음준비 개념의 본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하고자 하는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노인들이 인식하는 노년기 죽음준비의 내용은 무엇인가?

연구 문제 2. 노인들이 인식하는 노년기 죽음준비의 내용은 어떤 차원과 군집으로 구분되는가?

연구 문제 3. 노인들이 인식하는 노년기 죽음준비 항목의 상대적 중요도는 어떠한가?

방 법

연구참여자

연구의 참여자는 노년기 발달 과업인 죽음준비를 인식하고 있거나 직접 경험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이다.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은 다음 연구 참여에 동의하고 죽음준비에 대해 30분 이상 이야기하는데 심리적 불편감이나 거부감이 없는 노인으로 선정하였다. 개념도 연구방법에서 참여자 수는 크게 제한을 두지 않으나, 아

표 1. 연구참여자 특징¹⁾

참여자	성별	연령	교육수준	종교	경제 수준	건강 수준	배우자 유무	거주 지역
최빨강	여성	71	전문대졸	불교	중상	중	유	경기도
이주황	여성	69	전문대졸	개신교	중	중	유	서울
김노랑	남성	81	전문대졸	불교	중	중	유	서울
박초록	여성	78	대졸	개신교	하	중	유	경기도
이파랑	남성	86	대중퇴	개신교	하	상	유	경기도
장연두	여성	68	대학원재학	개신교	상	상	유	미국
김보라	여성	74	대졸	천주교	중하	중	이혼	서울
서하얀	여성	72	중졸	불교	중하	중	유	서울
임검정	남성	75	대졸	개신교	상	중	유	서울
변핑크	여성	73	전문대졸	무	상	중	유	서울
안하늘	여성	70	대졸	개신교	하	상	유	서울
이남색	남성	72	대학원졸	개신교	하	상	유	강원도

이디어를 충분히 산출하기 위해서는 최소 10명 이상을 권장하지만(Kane & Trochim, 2006), 실제로는 8명~20명 정도가 연구 관리에 적절하다고 본다(Trochim, 1989). 이에 참여자를 10명~15명으로 예상하고 면담을 진행했으며 더는 새로운 진술문이 도출되지 않는 이론적 포화에 이르렀을 때 참여자 모집을 중지했으며, 최종 연구 참여자의 수는 12명이었다.

연구 참여자의 성별은 여성 8명(67%), 남성 4명(33%), 연령은 최소 68세에서 86세로 평균 74.08세($SD= 5.04$)였다. 교육 수준은 중학교 졸업 1명(8%), 전문대학교 졸업 4명(33%), 대학교 중퇴 1명(8%), 대학교 졸업 4명(33%), 대학원 재학 1명(8%), 대학원 졸업 1명(8%)이었으며, 종교는 개신교 7명(58%), 불교 3명(25%), 천주교 1명(8%), 무

교 1명(8%)이었다. 참여자들은 모두 자신들의 주관적 건강 상태를 ‘중’ 이상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거주 지역은 서울 7명(58%), 경기도 3명(25%), 강원도 1명(8%), 미국 1명(8%)이었다. 미국에 거주하는 참여자는 한국 단기 체류 중 연구에 참여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자가 소속된 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사전 심의 및 승인을 받고 이루어졌고, 연구가 완료된 후 참여자에게 소정의 사례를 지급하였다.

연구절차

본 연구는 노년기 죽음준비에 대한 경험과 내용을 탐색하기 위해 Kane과 Trochim(2006)이 제시한 개념도 연구 절차를 따랐다. 우선 초점질문과 최종진술문을 종합, 편집하고, 차원이나 군집명을

1) 참여자 이름은 가명으로 표기하였음.

정하기 위해 노인 연구 전문가이며 개념도 연구 경험이 있는 교수 1인, 개념도 연구 방법에 대한 강의와 개념도 연구 경험이 있는 박사 1인, 개념도 연구로 논문을 작성한 석사 1인, 연구자 등 총 4인으로 전문가 연구팀을 구성하였다. Kane과 Trochim(2006)의 5단계 연구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 번째, 개념도 준비단계에서는 연구팀과 함께 적절한 초점질문을 개발한 다음 아이디어를 수집하기 위해 연구주제에 맞는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초점질문(Kane & Trochim, 2007)은 참여자들이 명확하게 질문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탐색한 뒤 5점 리커트척도로 제작해서 연구팀에게 적절성과 타당성을 검토받았다. 초점질문의 적절성 평가 기준(은혜경, 2010)은 ‘참여자들이 연구주제에 적합한 아이디어를 잘 표현하고, 생각을 자유롭게 말하고, 초점질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인가’이다. 이러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최종 결정된 초점질문은 “죽음준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이다.

두 번째, 아이디어 산출단계는 면담 과정으로, 1명은 온라인으로 진행하였으며, 11명은 대면으로 진행했다. 면담 시간은 40분~2시간 30분이었으며, 대면 면담은 참여자의 자택이나 스터디카페에서 진행하였다. 면담 시작 전 연구자가 연구에 대해 설명하였고, 참여자는 연구 참여 설명문 및 동의서와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면담 내용 녹음에 대한 동의를 구한 후 녹음을 하였다. 아이디어 산출단계를 통해 총 512개의 죽음준비 진술문이 도출되었다. 참여자 1명당 21개~64개의 진술문이 도출되었으며, 평균은 43개(표준편차=14.2개)였다. 추출된 진술문 중 중복된 내용은 삭제하고 유사한 내용을 종합하고 편집하는 과정을 거쳐 76개의 진술문을 산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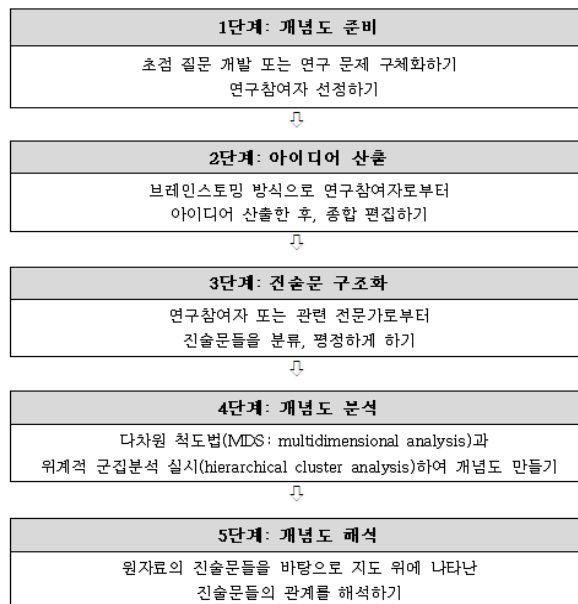


그림 1. 개념도 연구 절차

Kane과 Trochim(2007)은 최종진술문 작성의 원칙으로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진술문 하나에는 한 가지 아이디어만 포함되어야 하며, 참여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명료하게 편집되어야 하며, 참여자가 유사성 분류와 중요도 평정을 할 수 있도록 100개 이하의 진술문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전문가 연구팀의 회의를 통해 최종 52개의 진술문이 도출되었다. 다음으로 52개의 최종진술문을 12명의 참여자에게 돌려보내 면담한 내용 중 왜곡되고 누락된 부분이나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점검하였다. 참여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최종진술문 52개를 확정하였다. 세 번째, 진술문 구조화단계는 최종진술문 52개를 참여자들이 유사한 것끼리 분류하고, 분류된 카드의 군집명을 정하고, 각 진술문의 중요도를 평정하는 과정이다. 하나의 진술문을 하나의 카드로 제작하였고, 진술문의 중요도는 5점 리커트척도로 평정하게 하였다. 이 과정은

연구자가 참여자와 대면하여 실시하였으며, 지역 참여자는 우편 등기로 설명문과 함께 전달했으며 이후 분류된 내용을 문자로 전송받았다.

네 번째, 개념도 분석단계에서는 다차원척도와 군집분석을 활용하여 차원과 군집 및 개념도를 도출했다. 엑셀을 활용하여 같은 집단에 속하는 진술문은 0, 다른 집단에 속하는 진술문은 1로 코딩하였다. 12명의 참여자 별로 개인 유사성 행렬표를 만든 다음 합산하여 집단 유사성 행렬표(GSM: Group Similarity Matrix)로 만든 후 SPSS 22.0을 이용해서 다차원척도 분석 중 ALSCAL을 실시했다. 다차원척도법의 목적은 대상들 간의 관련성과 관계의 복잡성을 적은 수로 공간 차원에서 시각화해서 개념 지도를 만드는 것이다(Kane & Trochim, 2007). 참여자들 간의 다차원 공간의 위치를 결정하는 작업을 반복하는 데 이것은 상대적 거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스트레스 값(stress value)이 도출되는데, 스트레스 값은 입력된 유사성이나 비유사성 자료에서 산출된 결과의 거리 사이의 적합도를 말하며, 스트레스 값이 적을수록 처음 자료와 산출된 결과의 일치성은 높게 나타난다(Kruskal, 1978). 끝으로 다차원분석 결과에서 도출된 진술문의 x, y의 좌표값으로 위계적 군집분석과 비위계적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이는 지도상에 위치한 점들을 군집으로 일관되게 분할하기 위해서이다(최운정, 김계현, 2007). 이때 이용되는 Ward 연결 방법은 거리를 기반으로 하는 자료를 의미 있게 만들기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Kane & Trochim, 2006). 이때 군집의 적절성과 하위 군집의 확인을 위해 K-평균법에 의한 비위계적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두 결과를 비교했다.

끝으로, 개념도 해석단계는 진술문의 유사성 분

류와 중요도 평정에 반영된 참여자들의 인식구조와 특성을 연구자의 전문적 지식을 기반으로 개념도를 추측해보며 해석하는 단계이다(Daughtry & Kunkel, 1993). 이 과정에서 연구팀과 여러 번 회의를 진행했고 그 결과는 연구에 반영되었다.

결 과

노년기 죽음준비의 차원

다차원척도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참여자가 인식하는 죽음준비에 대한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여 단순한 공간에서 가장 낮은 차원의 수를 시각화하는 것이다(박광배, 2000). 다차원척도 분석에서 차원의 수를 결정하는 보편적 기준은 세 가지이다. 첫째, 합치도는 참여자가 평정한 유사성 자료와 도면에 표시된 공간 사이의 차이로, 스트레스 값(stress value)으로 표현된다. 이때 스트레스 값은 불일치의 정도로 해석되며 합치도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값이 작으며, 0.10 이하를 만족할 만한 합치도 수준으로 본다. 둘째, 해석 가능성은 공간에 좌표값으로 표현된 차원들이 원자료의 정보에 근거하여 해석할 수 있는지를 의미한다. 셋째, 효율성은 합치도와 해석 가능성의 두 조건을 고려한 것으로 최대한 단순하고 차원의 수가 적은 것으로 정하는 것이다(최한나, 2007).

다차원척도 분석의 합치도 결과는 1차원 0.57 ($R^2 = .24$), 2차원 0.31 ($R^2 = .55$), 3차원 0.19 ($R^2 = .70$), 4차원 0.15 ($R^2 = .79$), 5차원 0.11 ($R^2 = .86$), 6차원 0.08 ($R^2 = .90$)로 나타났다. Kane과 Trochim (2006)은 개념도 연구 메타분석 결과에 따라 적절한 스트레스 값을 0.205~0.365로 제안하였다. 이

에 따르면 본 연구에서 1차원을 제외한 나머지 구조는 합치도 기준에서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중 해석 가능성과 단순하고 차원의 수가 적어야 한다는 효율성을 고려하여 2차원 구조를 최종 구조로 결정하고, 두 개 차원에 해당하는 진술문들을 확인함으로써 차원명을 정하였다. 우선 차원1(X축)의 정적 방향은 일상에서 계획한 것을 하나씩 실천하는 내용과 관련되어 있고, 부적 방향은 실존적 존재로서 어떻게 삶을 살다가 떠날 것인가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차원1(X축)은 '현실적-실존적' 차원으로 명명하였다. 다음으로 차원2(Y축)의 정적 방향은 자신이 떠난 뒤 남은 가족 특히 자식에 대한 배려와 관련되어 있으며, 부적 방향은 남은 삶에 대한 다짐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차원2(Y축)은 '미래지향적-현재지향적' 차원으로 명명하였다.

노년기 죽음준비의 군집

현재 개념도 연구에서 활용하는 군집분석의 방법은 군집의 수를 계층적 방법으로 결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비계층적 분석을 이용해 최종 군집을 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차원적도 분석을 활용하여 도출한 2차원의 x, y의 좌표값을 이용하여 먼저 위계적 군집분석의 하나인 Ward 연결법을 실시한 다음 군집의 수를 미리 정해서 K-평균법을 실행하였다. 최종 군집의 결정은 선행연구(김혜민, 유금란, 2021; 이동귀 외, 2019; 최규하, 주영아, 2022)를 참조하여 다음의 기준을 따랐다. 첫째, 군집의 수는 '진술문 구조화 단계'에서 참여자들이 분류한 군집 수를 넘지 않아야 한다. 둘째, 군집의 진술문들은 다른 진술문들과 분명한 의미 차이가 있어야 한다. 셋째, 덴드로그램의 군집을 기준으로 논리적 유사성이 있어야 한다.

그림 2의 분석 결과로 군집을 결정한 다음 다차원적도 분석 결과에 나타난 좌표 위치와 차원의 특성, 진술문들의 유사성, 카드 분류 시 연구 참여자들이 정해진 군집명을 참고하여 연구팀과 논의를 거듭했다. 그 결과 최종 군집명을 '군집 1. 여생에 대한 집중', '군집 2. 일상의 정리', '군집 3. 마지막 과정에 대한 바람', '군집 4. 의미와 생성감 추구'로 결정했다.

최종 군집명과 각 군집에 해당하는 진술문들과 각 진술문에 대해 평정한 중요도 평균은 표 2에 제시하였다.

개념도에 표시된 2차원 공간의 진술문의 위치와 거리를 분석한 좌표값을 기준으로 각 군집에 포함된 진술문을 살펴보면 '군집 1. 여생에 대한 집중'에는 총 13개의 진술문이 포함되었다. 자식에게 피해 주지 않기 위해 건강한 몸을 만드는 것(0.52, -1.76), 치매에 걸리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것(0.47, -1.73), 자아실현을 하는 것(0.57, -1.47), 고생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0.46, -1.41), 죽기 전에 인간관계를 개선하는 것(0.83, -0.83) 등 남아있는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군집 2. 일상의 정리'에는 총 18개의 진술문이 포함되었다. 부모님 산소를 정리해서 자손에게 넘겨주지 않는 것(0.73, 1.05),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쓰는 것(0.47, 1.14). 보험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메모해놓는 것(1.25, 0.27), 재산을 다양한 방법으로 정리하는 것(0.86, 0.76), 몸을 움직일 수 있을 때 스스로 내 물건을 정리하는 것(0.71, 1.25) 등 자신이 떠난 다음 남아있는 가족 특히 자녀들에게 민폐를 끼치고 싶지 않은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루어져 있다. '군집 3. 마지막 과정에 대한 바람'에는 총 13개의 진술문이 포함되었다. 고통 없이 잠자듯이 죽게 해달라고 매일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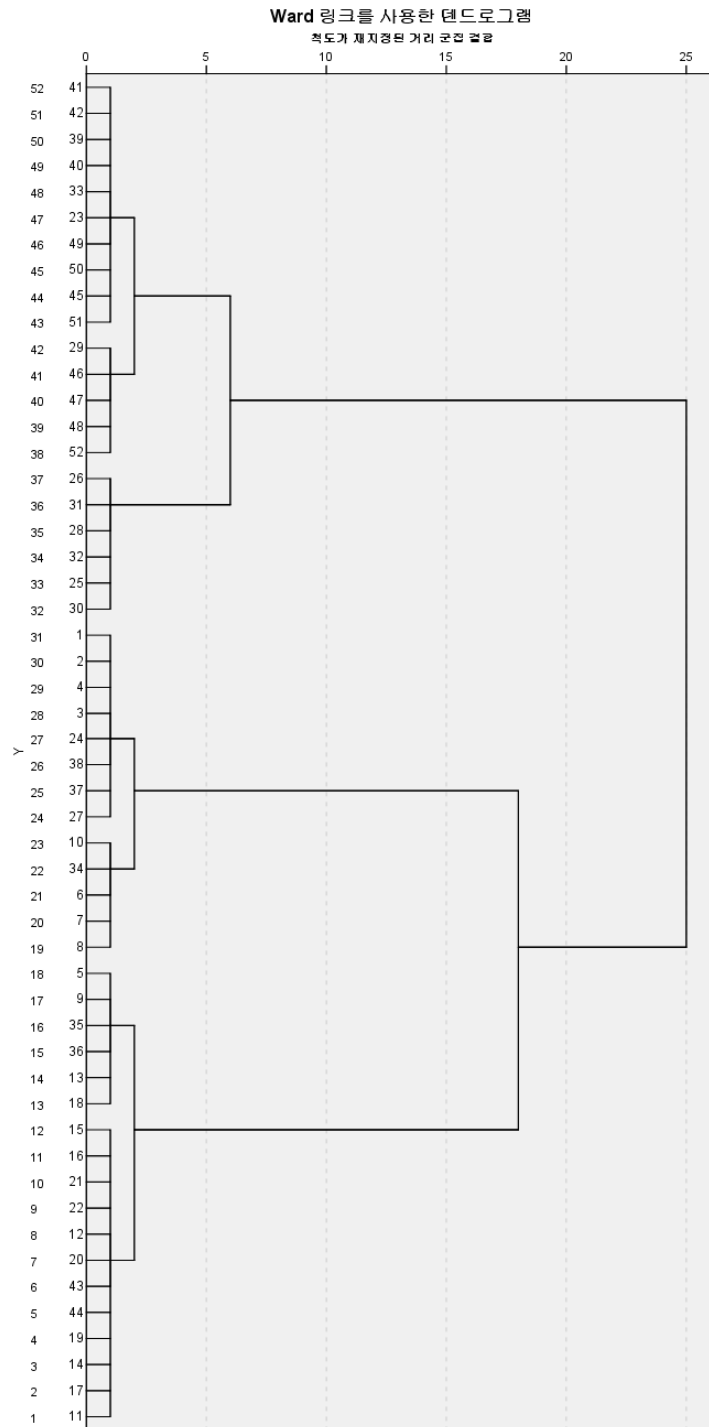


그림 2. Ward 연결법을 사용한 덴드로그램

표 2. 군집명과 군집 내 진술문, 중요도

군집	No.	최종진술문	중요도	
군집 1. 여생에 대한 집중 (13개)	1	자식한테 피해 주지 않기 위해 건강한 몸을 만드는 것이다.	4.75	
	2	고통 없이 죽기 위해서 건강관리를 하는 것이다.	4.58	
	3	치매에 걸리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것이다.	4.83	
	4	계획한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건강관리를 하는 것이다.	4.5	
	6	친구와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다.	3.91	
	7	죽기 전에 인간관계를 개선하는 것이다.	4.25	
	8	살아온 날을 반성하는 것이다.	4.16	
	10	안 하면 후회가 되는 것들을 하나씩 실천하는 것이다.	4.08	
	중요도 평균 (4.36)	24	봉사를 하는 것이다.	4.25
		27	어른으로서 모범을 보이는 것이다.	4.41
34		가족여행을 가는 것이다.	4.5	
37		자아실현을 하는 것이다.	4.33	
38		고생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다.	4.08	
군집 2. 일상의 정리 (18개)	5	죽을 때까지 쓸 돈을 마련해서 경제적인 부분을 준비하는 것이다.	4.5	
	9	여행 갈 때 돌아오지 못할 준비를 하고 떠나는 것이다.	4	
	11	부모님 산소를 정리해서 자손에게 넘겨주지 않는 것이다.	4.58	
	12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쓰는 것이다.	4.58	
	13	보험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메모해놓는 것이다.	4.58	
	14	사진을 정리하는 것이다.	4.08	
	15	휴대폰 전화번호를 정리하는 것이다.	4.08	
	16	몸을 움직일 수 있을 때 스스로 내 물건을 정리하는 것이다.	4.58	
	17	죽기 전 컴퓨터에 내장된 정보를 다 삭제하는 것이다.	4.16	
	18	배우자에게 마음을 전하는 편지를 쓰는 것이다.	4.33	
	중요도 평균 (4.41)	19	배우자와 함께 죽음에 관한 대화를 하는 것이다.	4.41
		20	자녀가 힘들지 않게 상조 서비스를 준비하는 것이다.	4.41
		21	각종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다.	4.25
		22	보험의 수익자를 자식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4.66
35		죽기 전 자녀를 독립시키는 것이다.	4.58	
36		자녀들에게 마음을 담은 편지를 쓰는 것이다.	4.58	
43		재산을 다양한 방법으로 정리하는 것이다.	4.33	
44		재산을 잘 정리해서 자손이 화목하게 살도록 하는 것이다.	4.66	

표 2. 군집명과 군집 내 진술문, 중요도

(계속)

군집	No.	최종진술문	중요도
군집 3.	23	내가 원하는 장례식 분위기를 계획하고 당부해두는 것이다.	4.08
	33	희망하는 임종 장소를 미리 정해서 알려두는 것이다.	3.83
	39	구체적인 장례 절차와 방법에 대해 계획하고 당부하는 것이다.	4.25
	40	수의를 준비하는 것이다.	4.08
	41	영정사진을 준비하는 것이다.	4
마지막 과정에 대한 바람 (13개)	42	장지를 준비하는 것이다.	4.25
	45	기일을 기념하는 방법에 대해 당부하는 것이다.	3.5
	47	고통 없이 잠자듯이 죽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를 하는 것이다.	4.66
	48	죽음과 관련된 교육을 듣는 것이다.	4.16
중요도 평균 (4.19)	49	다른 사람의 죽음준비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다.	4
	50	죽음을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4.08
	51	떠난 사람들을 보고 느낀 것을 내 죽음준비에 반영하는 것이다.	4.08
	52	죽음을 아름답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4.08
	군집 4.	25	의술의 발전을 위해 장기기증을 하는 것이다.
26		내가 가진 재능을 기부하는 것이다.	4.16
28		교육이나 연구자료로 시신을 기증해서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다.	4.33
의미와 생성감 추구 (8개)	29	내가 믿었던 종교단체에 돈을 기부하는 것이다.	4
	30	사후세계를 믿는 것이다.	4.5
중요도 평균 (4.35)	31	사후에 자식과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4.41
	32	신앙인으로서 태도를 갖추는 것이다.	4.5
	46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종교를 갖는 것이다.	4.75

도를 하는 것(-1.45, 0.05), 내가 원하는 장례식 분위기를 계획하고 당부해두는 것(-1.36, 0.76), 구체적인 장례 절차와 방법에 대해 계획하고 당부하는 것(-1.36, 0.64), 희망하는 임종 장소를 미리 정해서 알려두는 것(-1.32, 0.56), 죽음을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것(-1.01, 0.67) 등 자신의 마지막 과정에 대한 당부와 바람으로 이루어져 있다.

‘군집 4. 의미와 생성감 추구’에는 총 8개의 진술문이 포함되었다. 의술의 발전을 위해 장기기증을 하는 것(-1.21, -0.85), 내가 가진 재능을 기부하는 것(-0.62, -1.25), 교육이나 연구 자료로 시신을 기증해서 사회에 환원하는 것(-1.01, -0.99), 사후 세계를 믿는 것(-1.38, -0.75),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종교를 갖는 것(-1.32, -0.22) 등 자신이 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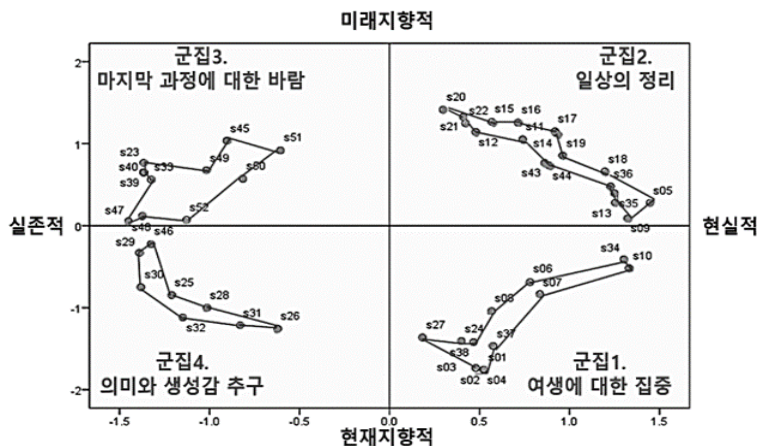


그림 3. 노년기 죽음준비에 대한 개념도²⁾

아은 삶이 의미 있기를 바라는 내용의 진술문들이 었다.

최종진술문 52개의 중요도의 평균은 4.3점($SD=.87$)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중요도가 분포된 것을 살펴보면 평균 4.5점 이상의 진술문이 20개 (38.5%), 평균 4.5점 미만~4점 이상의 진술문이 29개(55.8%), 평균 4점 미만~3.5점 이상이 3개 (5.8%)로 나타났다. 중요도를 평정한 진술문 중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평균 4.83점($SD=.38$)으로 '3. 치매에 걸리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이다. 다음은 평균 4.75점($SD=.62$)으로 '1. 자식한테 피해 주지 않기 위해 건강한 몸을 만드는 것이다.'와 '46.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종교를 갖는 것이다.', '50. 죽음을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가 같은 점수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군집 2. 일상의 정리'를 평균 4.41점($SD=.78$)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평정했고, '군집 1. 여생에 대한 집중' 평균 4.36점($SD=.81$), '군집 4. 의미와 생성감 추구' 평균 4.35점($SD=.83$), '군집 3. 마지막 과정에 대한 바람' 평균 4.19점($SD=1.09$)으로

군집의 중요도를 평정했다. 위의 결과를 기반으로 2차원 공간에 분류한 4개의 군집을 표현하면 그림 3과 같으며 시각화한 개념도를 통해 노년기 죽음준비에 대한 차원과 범주 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알아 볼 수 있다.

논 의

본 연구는 노인들이 인식하는 죽음준비의 의미를 탐색한 뒤 개념도를 활용하여 죽음준비의 개념적 구조와 내용을 시각화하고, 죽음준비의 차원과 군집, 상대적 중요도를 알아보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65세 이상의 노인 12명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여 52개의 최종진술문을 도출하였다. 다차원적 도법과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현실적-실존적', '미래지향적-현실지향적'의 2개 차원과 '여생에 대

2) 군집 3의 진술문의 결과값이 같은 s40(-1.36, 0.64), s41, s42의 경우 진술문 번호가 겹쳐서 s41, s42는 개념도에 나타나지 않는다.

한 집중', '일상의 정리', '마지막 과정에 대한 바람', '의미와 생성감 추구'의 4개 군집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확인된 우리나라 노인들이 인식하는 죽음준비 개념의 차원, 군집, 중요도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장 많은 진술문이 포함되어 있으며 중요도 평정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군집은 '현실적-미래지향적' 차원에 위치한 '군집 2. 일상의 정리'이다. 이 군집은 노인 스스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부모님 산소를 자식에게 넘겨주지 않기 위해 산소를 정리하고, 배우자와 죽음에 대해 구체적인 대화를 하면서 자신의 죽음 후 미래에 발생할 일들과 관련하여 매우 현실적인 문제들을 처리하는 것과 관련된다. 특히 재산 정리, 보험 가입, 쓸 돈 마련 등 경제적인 준비에 대해 매우 신경을 쓴다. 그런데 OECD의 'Social and Welfare Statistic'의 최근 발표에 의하면 한국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이 43%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아 노인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현실은 다른 양상을 보인다. 아마도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이와 같은 현실-이상의 괴리가 경제적인 것을 죽음준비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는 분위기를 만들었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또한 참여자 노인들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것을 중요한 죽음준비로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아직 이러한 준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2016년 한국의 총 사망자 28만 명 중 21만 명(75%)이 병원에서 사망하였고, 이 중 대부분이 소생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중환자실에서 생명연장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홍정주, 이미옥, 2020).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일상의 정리'에 포함된 많은 죽음준비들이 자식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한 것들임을 알 수 있

다. 물론 가족이나 친구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를 원하는 것은 노인들의 인생 마지막 이슈이지만(Lloyd-Williams, et al., 2007), 이러한 점은 한국 노인의 경우 특히 두드러진다. 한국 노인들은 자신의 노후에 자식에 대한 의존을 극도로 자제하려는 모습을 보인다(김미혜 외, 2004). 이것은 죽음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자식들을 힘들게 하지 않고 죽는 것을 좋은 죽음(한나영 외, 2002)이나 복(福)있는 죽음(김미혜 외, 2004)으로 생각한다.

둘째, '현실적-현재지향적' 차원에 위치한 '군집 1. 여생에 대한 집중'은 일상에서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현재 당면한 삶을 위해 해야 하는 매우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것들에 관한 것이다. 건강과 관련된 진술문은 죽기 전까지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고 주체적으로 활동하기 위해 건강을 관리해야 한다는 노인들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노인들이 건강하게 살다가 죽는 것을 좋은 죽음으로 인식한다는 선행연구(이명숙, 김윤정, 2013)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죽음준비는 좋은 죽음을 지향하는 과정임을 보여준다. 또한 노인들은 친구와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죽음준비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일상에서 죽음에 대해 말을 하면 죽음에 대한 막연한 불안이나 두려움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조명옥, 1996), 이러한 결과들은 죽음준비로 가까운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죽음에 대해 표현하는 것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완화하는 좋은 죽음대처 방법이 될 수 있다(김태현, 전길양, 1997). 더 나아가 죽음과 죽음준비에 대한 대화는 회상의 한 기능으로서 죽음 수용을 촉진한다(Antonucci et al., 2010; Haj & Antoine, 2016). 따라서 죽음준비의 시작인 죽음준비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죽음태도인 죽음에 대한 수용을

높이고 죽음에 대한 불안을 낮출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노인들은 살아온 날을 반성하며 인간관계를 개선하고 남은 삶은 자아실현과 봉사를 하면서 사회에 환원하고, 자식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가족여행을 가는 것을 중요한 죽음준비로 여겼다. 이는 노인들이 죽기 전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다가 죽는 것을 품위 있는 죽음(Byock, 2011)이나 의미 있는 죽음(유용식, 2017)으로 여긴다는 선행연구 결과들과 일맥상통한다. 이것은 노인들이 죽음불안을 감소시키고 좋은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데 자원봉사가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자원봉사 경험의 빈도가 높을수록 죽음에 대한 불안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최외신 외, 2007).

셋째, ‘실존적-현재지향적’ 차원에 위치한 ‘군집 4. 의미와 생성감 추구’는 현재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한 보다 본질적인 실존적 고민들과 관련된 진술문들로 구성되어 있다. 노인들은 장기나 시신을 기증하고, 자신이 가진 재능이나 물질의 기부 등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는 것을 중요한 죽음준비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생각은 인간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상태로 태어나 다시 무의 상태로 돌아간다는 인간 존재의 실존적 고민의 결과일 수 있다. 또한 종교나 신앙, 사후세계에 관한 것이 노인들의 죽음준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사후세계에 대한 믿음은 죽음의 의미나 목적을 찾는 중요한 과정으로 죽음의 두려움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여 정신적 죽음준비인 긍정적인 내세관과 관련이 있다(김미순 외, 2011). 종교나 영성이 죽음준비와 관련되어 있다는 노인들의 인식은 종교가 죽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완화하는 순기능을 가지며, 종교에 대한 몰입이 사후세계에 대한 믿음으로 이어져 죽음불안을 완충하는 역할을 하며(김숙남, 최순옥, 2010), 영성이 강할수록 죽음준비 수준이 높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들로 해석 가능하다(Pinquart & Sörensen, 2002).

넷째, ‘실존적-미래지향적’ 차원에 위치한 ‘군집 3. 마지막 과정에 대한 바람’은 미래에 있을 죽음의 마지막 과정에 대한 진술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추가 면담에서 참여자들은 장례식이나 임종 장소에 대해 구체적인 희망을 표현하였는데 예를 들면, 결혼식 뷔페처럼 파티를 하고, 빨간색의 조화, 오케스트라 4중주의 연주, 조의금을 받지 않고, 종교에 따라 종교음악이 울려 퍼지기를 원했다. 예를 들어 최근에는 생전장례식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이는 노인들이 전통적인 장례문화를 당연하게 여기고 받아들이기보다는 자신의 정체감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자신만의 장례식(송현동 외, 2022)을 원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또한 좋은 죽음에 대한 선행연구(이명숙, 김윤정, 2013)와 마찬가지로 참여자들은 집에서 가족과 함께 임종을 맞기를 원한다고 하였다. 마지막 과정에 대한 노인들의 이러한 바람은 죽음을 삶과 분리된 전혀 다른 범주가 아닌, 삶의 연속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자신의 일상 안에서 죽음을 자연스럽게 경험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참여자들은 고통 없이 죽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는데, 이는 좋은 죽음의 핵심적 요소이다(한나영 외, 2002). 고통 없는 죽음에 대한 준비는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호스피스나 완화치료에 대한 요구로 이어지게 된다(최정규 외, 2015). 호스피스 완화치료에서는 통증을 줄이기 위한 처치에 일차적 초점을 맞추는데, 통증이 없는 상태일

때 인간은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이은영, 2018). 노인들은 죽음교육 혹은 죽음준비에 대한 공부를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선행연구에서도 죽음 관련 교육을 접한 노인은 불안이나 두려움이 감소하며 자신이 살아온 삶을 좀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정림, 2013). 하지만 아직 한국 사회에서는 죽음 교육이나 죽음준비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이이정, 2016). 본 연구의 결과와 선행연구의 결과를 종합해볼 때, 향후 우리 사회가 죽음준비 교육에 대해 적극적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다섯째, 죽음준비 항목의 중요도를 살펴보면 참여자들은 대부분의 항목들을 비슷한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요도 평정에서 항목 간 차이가 크지는 않았지만 참여자들이 '치매에 걸리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다고 평정한 것은 노인들의 치매에 대한 걱정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노년기 치매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노인들은 자신도 치매에 걸릴지 모른다는 치매 불안감을 느끼며, 다른 병과 달리 치매는 가족을 고통스럽게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이경원, 김애리, 2018). 치매에 대한 이러한 염려는 노인들이 인생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맞이하고 싶다는 열망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이처럼 노인들은 또렷한 의식을 가지고 건강하게 살다가 죽기를 원했으나 통계청(2021) 발표에 의하면 치매로 인한 사망률이 20.7%로 나타나는데 이는 10년 전에 비해 8.6%나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결과들로 볼 때, 죽음에 대한 불안을 줄이고 죽음을 잘 수용할 수 있도록 돕고 노인들의 현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치매를 예방하여 건강한 정신 상태를 유지하도록 정부 차원과 개인 차원의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여섯째,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일상의 정리'뿐 아니라 '여생에 대한 집중'이나 '의미와 생성감 추구'의 중요도도 비슷하게 높은 수준으로 평정하였다. 이는 일반적으로 죽음준비에 대한 사회적 통념인 물질적, 의례적 죽음준비 이상으로 노인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죽음준비를 이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선행연구의 물질적·의례적 준비에 해당하는 영정사진, 수의, 장례식, 장지, 제사 문제 등의 '마지막 과정에 대한 바람'이 정신적 죽음준비에 해당하는 '의미와 생성감 추구'보다 중요도가 낮게 평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매우 고무적인데, 선행연구에 따르면 정신적 죽음준비가 물질적·의례적 죽음준비보다 노인들의 삶에 더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선행연구에서 노인들의 정신적 죽음준비 수준이 높을수록 죽음불안이 낮고 생활만족도가 높았으며(김미순, 2006), 정신적 죽음준비는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쳐, 불안과 우울을 낮추며, 자아통합감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의례적 죽음준비 과정은 우울을 높이는 반면 죽음불안과 자아통합감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문남숙, 남기민, 2008).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여전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묘지준비, 수의, 상조 서비스 가입 등 의례적인 것들을 중요한 죽음준비로 생각하고 있으며, 실제로 많은 노인들이 미리 수의나 영정사진을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가연 외, 2018). 하지만 본 연구와 선행연구들의 결과들은 물질적·의례적 죽음준비도 필요하지만 정신적 죽음준비가 더 강조되어야 함을 시사한다(이가연 외, 2018). 죽음준비교육을 계획하거나 실시하는 현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물론 임종과 장례에 대한 구체적 절차에 대한 정보 제공이나 여생을 정리하도록 돕는 방법들에 대해 교육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여기에 더해 정신

적 죽음준비까지 포함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면 노인들의 정신건강을 돕고 자아통합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흥미로운 결과는 노인들은 삶과 죽음을 이분법적이지 아닌, 서로 분리되지 않은 연속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죽음준비를 '일상의 정리'나 '마지막 과정에 대한 바람'뿐 아니라 '여행에 대한 집중'과 '의미와 생성감 추구'처럼 현재의 삶을 잘 사는 것을 포괄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즉 노인들은 현재의 삶을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고 자신의 삶의 가치를 발견함으로써 좋은 죽음에 이를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는데, 이는 삶과 죽음이 연속적이라는 철학을 반영하고 있다(이동욱, 2007). 죽음 준비는 삶과 죽음이 연속적임을 이해하고, 삶의 사건을 이해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줄이며,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 생각하는 것 등(Liu & Van Schalkwyk, 2019; Mak et al., 2013), 죽음을 수용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다양한 행동양식(Kastenbaum, Moreman, 2012)을 포함하는 것임을 재차 확인하였다. 현재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들도 이러한 철학적 관점에 바탕을 두고 있지만(현은민, 2005),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노인들이 생각하는 좋은 죽음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삶의 방식과 방향을 안내해 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프로그램에서 시도하고 있는 버킷리스트 작성(변도화, 박미현, 2017)이나 인생회고(여인숙, 김춘경, 2006)뿐만 아니라 노인들이 현재 삶에서 신체적, 경제적 안녕을 경험하고 생성감을 느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또한 본 연구의 참여자인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비교적 건강하며 교육 수준이 높은 노인들은 죽음준비를 매우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관점에서 바라보

고 있었다. 이는 장기요양시설 거주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Park과 Hwang(2017)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인데, 이 연구에서는 노인들이 자신의 죽음에 대한 의사결정자가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집에 거주하는 노인들과 시설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생각하는 좋은 죽음의 우선순위에서 차이가 있었는데 시설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고통 없이 죽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반면 자택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심리적 안녕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ark et al., 2015). 이러한 차이는 참여자의 현재 상태가 죽음준비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하며, 따라서 향후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죽음준비에 대한 인식 차이나 인식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와 활용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를 통해 노년기 죽음준비를 개념도로 시각화해서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특히 본 연구는 죽음을 가까이 인식하고 있는 노인들 당사자가 생각하는 죽음준비의 내용과 차원, 구성 요소를 밝힌 첫 번째 연구로서 의미가 있으며, 향후 노인 대상의 죽음 관련 연구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이나 집단상담 등을 계획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차원적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은 노인들이 죽음을 수용함으로써 죽음에 대한 불안을 줄일 뿐만 아니라, 현재의 삶을 더 의미 있게 살아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 삶 전체를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해준다(Jeon et al., 2015).

둘째,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죽음준비를 측정하는 척도 개발의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보된 죽음준비 척도가 개발된다면

이를 활용하여 죽음준비가 노인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는 후속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다른 차원의 죽음준비가 자아통합과 같은 노년기의 긍정적 발달의 결과와 어떤 차별적 관련성을 가지는지 또는 어떤 죽음준비가 죽음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관련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죽음에 대해 사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죽음준비에 대한 대중의 인식 전환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물론 정부 차원에서도 노인들이 인식하고 있는 죽음 준비와 관련한 좋은 죽음에 관한 지표를 사회 조사를 통해 확인하고 발표하고 있지만, 이러한 연구들과 연구결과를 통해 죽음준비와 좋은 죽음에 대한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이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과거에는 많은 사람들이 장례나 의례, 보험을 준비하는 정도를 죽음준비로 인식하고 있었다면 현재를 살아가는 노인들은 남아있는 삶을 잘 살아내는 것 즉 죽음과 삶을 통합하는 것까지를 포함하여 죽음준비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죽음에 대한 정책이나 넓게는 복지, 의료 정책 마련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개념도 방법론을 활용한 연구로, 적은 수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참여자들 대부분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중간 이상의 건강 수준을 가진 고학력자였다. 또한 남녀의 성비가 고르지 못한 점, 배우자 유무에 사별이나 비혼이 포함되지 못한 점 등은 아쉬운 부분이다. 특히 본 연구의 참여자 12명 중 종교를 가진

사람이 11명이며 그중에 기독교인이 8명이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죽음과 죽음에 관한 종교적 신념이 개인의 죽음에 대한 인식과 좋은 죽음을 준비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Liu & van Schalkwyk, 2019; Mak et al., 2013). 예를 들어, 기독교인과 불교 신자들은 전통적으로 죽음을 불멸의 맥락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으로 간주해 왔다(Mak et al., 2013). 이러한 결과로 보아,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의 종교적 신념이 죽음준비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종교적 신념을 통제하거나, 종교인과 비종교인을 균형 있게 표집하여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지역과 성비, 학력 수준, 배우자 유무 등을 고려해서 본 연구의 결과를 재검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참여자들이 진술문을 자신의 기준으로 분류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개념도 연구에서 나타나는 한계(Kane & Trochim, 2007)로, 본 연구에서도 네 개의 군집 안에 포함된 진술문 중에는 해당 군집과의 일관성이 낮아 보이는 진술문들이 존재한다. 향후 연구에서 본 연구에서 도출된 진술문들을 바탕으로 척도 개발을 할 때, 탐색적 요인분석을 한다면 죽음준비의 구조를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Conflict of Interest

No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 relevant to this article was reported.

참고문헌

- 공명옥 (2018). **노인의 사회적 지지와 특성불안
자아통합감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산업대
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명숙 (2014). '행복'과 '성공적 노화' 그리고 '잘
죽기'. **철학논총**, **76**, 275-293.
- 김미순, 김효순, 하춘광 (2011). 내세관과 죽음준비
도 및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
학**, **16**(1), 111-136.
- 김미혜, 신경림, 강미선, 강인 (2004). 한국노인의
성공적 노후에 대한 경험. **한국노년학**, **24**(2),
79-95.
- 김 숙, 한정란 (2012). 성인들의 죽음에 관한 인
식, 죽음준비, 죽음불안. **인구교육**, **5**(1), 23-
48.
- 김숙남, 최순옥 (2010). 간호사의 죽음불안과 영성.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6**(1), 101-110.
- 김정림 (2013). **죽음준비교육이 중년여성의 죽음에
대한 태도와 생의 의미에 미치는 효과**. 부산가
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희, 한종숙 (2002). 지역사회 노인의 죽음태도
및 관련 요인. **노인간호학회지**, **4**(1), 93-103.
- 김태현, 전길양 (1997). 노년기 부부의 상호 간 지
지와 역할공유 및 결혼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
노년학**, **17**(2).
- 김현아 (2021). **죽음을 배우는 시간**. 경기: 창비.
- 김혜민, 유금란 (2021). LGB 내담자가 경험하는 상
담자의 마이크로그레션에 관한 개념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3**(4),
1501-1526.
[https://doi.org/10.23844/kjcp.2021.11.33.4.
1501](https://doi.org/10.23844/kjcp.2021.11.33.4.1501)
- 문남숙, 남기민 (2008). 노인의 죽음준비도와 성공
적 노화의 관계: 우울 및 죽음불안의 매개효과
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28**(4), 1227-1248.
- 박광배 (2000). **다차원척도법**. 경기: 교육과학사.
- 변도화, 박미현 (2017). 죽음준비교육이 간호학생들
의 생의 의미, 죽음과 웰다잉, 호스피스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효과.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
지**, **18**(5), 169-176.
<https://doi.org/10.5762/KAIS.2017.18.5.169>
- 송현동, 김설희, 김광환, 구진희 (2022). 노인의 장
례문화 인식변화에 대한 연구. **디지털융복합연
구**, **20**(5), 671-680.
<https://doi.org/10.14400/JDC.2022.20.5.671>
- 여인숙, 김춘경 (2006). 노년기 우울과 죽음불안 감
소를 위한 생애회고적 이야기치료 집단프로그
램의 효과. **가정과삶의질연구**, **24**(5), 113-128.
- 유용식 (2017). 사별한 노인이 인식하는 좋은 죽음
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
62, 1-31.
<https://doi.org/10.15300/jcw.2017.62.3.1>
- 유희옥 (2004). **중노년기의 죽음 불안태도: 내세관·
죽음준비도를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
원 박사학위논문.
- 은혜경 (2010). **경력단절 기혼여성의 재취업 성공
요인 탐색**.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가연, 전혜정, 유정옥 (2018). 지역사회 거주 노
인의 죽음준비 영향 요인. **한국산학기술학회**,
19(8), 167-175.
<https://doi.org/10.5762/KAIS.2018.19.8.167>
- 이경원, 김애리 (2018). 지역사회 노인의 치매지식,
치매불안감 및 치매예방행위와의 관계. **한국웰
니스학회지**, **13**(4), 357-367.
<https://doi.org/10.21097/ksw.2018.11.13.4.>

- 357
이동옥 (2007). 삶의 과정으로서 죽음에 관한 고찰. **여성건강, 8**(1), 87-109.
- 이동귀, 강승림, 박종철, 이수진, 손하림 (2019). 시설에서 자립을 앞둔 청소년 미혼모의 불안과 욕구에 대한 개념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4**(2), 105-124.
- 이명숙, 김윤정 (2013). 노인이 인식하는 좋은 죽음. **한국콘텐츠학회, 13**(6), 283-299.
<https://doi.org/10.5392/JKCA.2013.13.06.283>
- 이범수 (2016). 현대 한국사회의 생사문화와 불교적 죽음교육 방안. **선문화연구, 20**, 255-308.
- 이예종 (2005). **노인의 죽음준비인식과 죽음불안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관 이용자를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영 (2018). 연명의료결정법, 인간다운 죽음은 실현될 수 있는가?: 호스피스 철학을 통한 가능성 고찰. **한국여성철학, 30**, 1-34.
<https://doi.org/10.17316/kfp.2018.11.30.1>
- 이이정 (2016). 죽음준비교육의 현황과 과제. **노년교육연구, 2**(1), 69-88.
- 장연진, 하은솔 (2018). 주민주도성에 관한 개념도 (Concept Mapping) 연구. **사회복지연구, 49**(1), 163-190.
<https://doi.org/10.16999/kasws.2018.49.1.163>
- 정순돌, 김수현, 구미정 (2014). 죽음관련 요인과 죽음준비의 관계: 예비노인과 베이비부머의 비교. **한국인구학, 37**(1), 131-153.
- 정현채 (2021). **우리는 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 없는가**. 서울: 비아북.
- 조명옥 (1996). 한국인의 죽음 의식에 관한 연구. **중앙의학, 61**(9), 725-745.
- 최규하, 주영아 (2022). 중년기 성인이 인식하는 자기이해에 대한 개념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4**(3), 931-951.
<https://doi.org/10.23844/kjcp.2022.08.34.3.931>
- 최외선, 박인전 (2007). 노인의 죽음불안과 별-파도 그림 반응특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5), 15-29.
- 최외선, 최선남, 서월금 (2007).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자기효능감과 죽음불안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2**(2), 193-212.
- 최윤정, 김계현 (2007). 고학력 기혼여성의 진로 단절 위기 경험에 대한 개념도(Concept Mapping) 연구-진로지속 여성과 중단 여성간의 비교. **상담학연구, 8**(3), 1031-1045.
- 최정규, 태운희, 최영순 (2015). 가정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 도입을 위한 국민 인식도 조사.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지, 18**(3), 219-226.
<https://doi.org/10.14475/kjhpc.2015.18.3.219>
- 최준식 (2010). 진정한 죽음준비는 버킷리스트 (Bucker List)에 있지 않다.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46**, 1-31.
- 최한나 (2007). **좋은 수퍼비전 관계에 대한 수퍼바이지의 인식차원**.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나영, 정유석, 윤홍주, 유선미, 박일환 (2002). 좋은죽음에 대한 노인들의 인식. **가정의학회지, 23**(6), 769-777.
- 황설중 (2021). 인문 교양으로서 죽음 교육의 필요성과 융복합 실천 방법. **교양교육연구, 15**, 71-84.

- <https://doi.org/10.46392/kjge.2021.15.5.71>
현은민 (2005). 노인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0*(2), 31-56.
- 홍정주, 이미옥 (2020). 강원도 거주 성인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인식.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25*(5), 169-178.
- 통계청 (2020). **2020년 사망원인통계 결과**.
https://kostat.go.kr/boardDownload.es?bid=218&list_no=403046&seq=4 (2021.10.29.검색)
- Antonucci, T. C., Birditt, K. S., & Webster, N. J. (2010). Social relations and mortality: A more nuanced approach.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5*(5), 649-659.
<https://doi.org/10.1177/1359105310368189>
- Becker, D. (1994). Chronicle of an announced death (thoughts on mid-adulthood). *Israel journal of psychiatry and related sciences*, *31*(2), 115-120.
- Byock, I. (2011). **품위 있는 죽음의 조건**. [Dying well]. (김언조 역). 서울: 물푸레(원전은 1998에 출판).
- Chan, C. K., & Yau, M. K. (2010). Death preparation among the ethnic Chinese well-elderly in Singapore: an exploratory study. *OMEGA-Journal of Death and Dying*, *60*(3), 225-239.
<https://doi.org/10.2190/OM.60.3.b>
- Daughtry, D., & Kunkel, M. A. (1993). Experience of depression in college students: A concept map.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0*(3), 316.
<https://doi.org/10.1037/0022-0167.40.3.316>
- El Haj, M., & Antoine, P. (2016). Death preparation and boredom reduction as functions of reminiscence in Alzheimer's disease. *Journal of Alzheimer's Disease*, *54*(2), 515-523.
<https://doi.org/10.3233/JAD-160497>
- Erikson, E. H. (1963).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WW Norton).
- Firestone, R. W., & Catlett, J. (2009). *Beyond death anxiety: Achieving life-affirming death awareness*. Springer Publishing Company.
- Greenberg, J., Pyszczynski, T., & Solomon, S. (1986).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a need for self-esteem: A terror management theory. *Public self and private self*, 189-212.
https://doi.org/10.1007/978-1-4613-9564-5_10
- Howarth, G., & Leaman, O. (2003). *Encyclopedia of death and dying*. Routledge.
<https://doi.org/10.4324/9780203426463>
- Jeon, H. W., Kim, M. H., & Yoon, J. A. (2015). Death perception, death preparation and need for death educational program of the elderly. *Indian J Sci Technol*, *8*, 6.
<https://doi.org/10.17485/ijst/2015/v8i25/80275>
- Juhl, J. (2019). Terror management theory: A

- theory of psychological well-being. In *Handbook of terror management theory* (pp. 303-324). Academic Press.
<https://doi.org/10.1016/B978-0-12-811844-3.00013-5>
- Kane, M., & Trochim, W. (2006). Concept mapping for evaluation and planning. *Pergamon Press, 12*(1), 53-57.
- Kane, M., & Trochim, W. M. (2007). *Concept mapping for planning and evaluation* (Vol. 50, pp. 10-4135).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Kastenbaum, R., & Moreman, C. M. (2018). *Death, society, and human experience*. Routledge.
<https://doi.org/10.4324/9781315232058>
- Kruskal, W. (1978). LANGUAGE: Formulas, Numbers, Words: Statistics in Prose. *The American Scholar, 223-229*.
- Liu, Y., & van Schalkwyk, G. J. (2019). Death preparation of Chinese rural elders. *Death studies, 43*(4), 270-279.
<https://doi.org/10.1080/07481187.2018.1458760>
- Lloyd-Williams, M., Kennedy, V., Sixsmith, A., & Sixsmith, J. (2007). The end of life: a qualitative study of the perceptions of people over the age of 80 on issues surrounding death and dying. *Journal of pain and symptom management, 34*(1), 60-66.
<https://doi.org/10.1016/j.jpainsymman.2006.09.028>
- Mak, Y. W., Lim Chiang, V. C., & Chui, W. T. (2013). Experiences and perceptions of nurses caring for dying patients and families in the acute medical admission setting. *International journal of palliative nursing, 19*(9), 423-431.
<https://doi.org/10.12968/ijpn.2013.19.9.423>
- Nan, J. K. M., Pang, K. S. Y., Lam, K. K. F., Szeto, M. M. L., Sin, S. F. Y., & So, C. S. C. (2020). An expressive-arts-based life-death education program for the elderly: A qualitative study. *Death Studies, 44*(3), 131-140.
<https://doi.org/10.1080/07481187.2018.1527413>
- Oh, C., Miller-Lewis, L., & Tieman, J. (2020). Participation in an online course about death and dying: Exploring enrolment motivations and learning goals of health care workers. *Education Sciences, 10*(4), 112.
<https://doi.org/10.3390/educsci10040112>
- Park, S. J., & Hwang, Y. H. (2017). Death Awareness and Death Preparation Experiences In Hospitalized Elderly People in a LongzTerm Care Facility. *International Journal of Elderly Welfare Promotion and Management, 1*(1), 21-28.
<http://dx.doi.org/10.21742>
- Park, S., Kim, H., Jang, M. K., Kim, H., Raszewski, R., & Doorenbos, A. Z. (2023). Community-based death preparation and education: a scoping review. *Death Studies, 47*(2), 221-230.

<https://doi.org/10.1080/07481187.2022.2045524>

Park, S. Y., Kim, O. S., Cha, N. H., & Sok, S. R. (2015). Comparison of attitudes towards death and perceptions of do not resuscitate orders between older Korean adults residing in a facility and at home.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Practice, 21*(5), 660-669.

<https://doi.org/10.1111/ijn.12352>

Pinquart, M., & Sörensen, S. (2002). Preparation for death and preparation for care in older community-dwelling adults. *OMEGA-Journal of Death and Dying, 45*(1), 69-88.

<https://doi.org/10.2190/5K9j-C320-22LQ-KPH6>

Trochim, W. M. (1989). A introduction to concept mapping for planning and evaluation. *Evaluation and program planning, 12*(1), 1-16.

[https://doi.org/10.1016/0149-7189\(89\)90016-5](https://doi.org/10.1016/0149-7189(89)90016-5)

V. Fortner., & A. Neimeyer. (1999). Death anxiety in older adults: A quantitative review. *Death studies, 23*(5), 387-411.

<https://doi.org/10.1080/074811899200920>

Yalom, I. D. (2008). Staring at the sun: Overcoming the terror of death. *The Humanistic Psychologist, 36*(3-4), 283-297.

<https://doi.org/10.1080/08873260802350006>

Study on Concept Mapping of Death Preparation in Old Age

In Ja Choi¹

Min-Hee Kim²

Department of Counseling Psychology, Korea Counseling Graduate University/ A Graduate Student¹
Department of Counseling Psychology, Korea Counseling Graduate University/ Professor²

This study aims to verify and visualize the conceptual structure, dimension, and importance of death preparation by utilizing concept mapping regarding experiences with and content of death preparation as recognized, by older adults. For this purpose, 12 older adults who were interested in death preparation were selected as study participants. Subsequently, 52 final statements were generated from interviews with research participants. Using multidimensional scale analysis, hierarchical cluster analysis, and the K-means method on the derived statements, confirmed that the concept of death preparation comprises two dimensions and four clusters. The two dimensions were named the “realistic-existential” dimension and “future oriented-present oriented” dimension, while the four clusters were named “Concentration on the rest of life”, “Organizing daily life”, “Wish for the final process” and “Pursuit of meaning and creation”. Participants rated all four clusters as important in death preparation; however, they rated “Organizing daily life” the highest and “Wish for the final process” the lowest. This is the first study to confirm how the concept of death preparation is recognized by older adults from their own perspectives, and contributes to promoting future research related to death preparation in old age.

Keywords : Old Age, Older Adults, Death, Death Preparation, Concept Mapping